

## FEATURE



# 행복한 교육, 발도르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100년간 유효한 발도르프 교육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는다.

###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발도르프 교육은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년)가 1919년 창시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발도르프 아스토리아'라는 담배 공장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발도르프 학교를 처음 세웠고,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머리가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는 것을 교육 이념으로 삼았다. 발도르프 교육은 개별 학생을 고려한 전인 교육을 강조한다. 인지적 영역에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적 성장에 따라 의지, 감각, 사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모든 교육은 예술 활동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발도르프 학교는 1996년에 열린 세계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21세기 교육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유네스코의 지원, 연구 대상이다. 2018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64개국 1,092곳에 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발도르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공교육 안에서 부분적으로 발도르프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약 100년 전에 시작된 발도르프 교육이 현재에도 유효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혁 교육 모델로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도르프 교육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영유아기(0~7세), 아동기(7~14세), 청소년기(14~21세)로 나눈다. 영유아기는 신체, 영혼, 정신 중 신체가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다. 반면 정신은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주위 환경에서 누군가를 모방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좋은 본모형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아동기에는 영혼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다.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므로 느낌, 감정,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반면, 아동기에는 권위에 따른다. 발도르프 학교가 8년 담임제를 운영해 같은 교사에게 주요 교과를 배우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는 신체, 영혼, 정신이 완전히 분리되는 시기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추상적인 개념 이해와 논리적 사고도 가능하다. 이때부터 교사는 가이드나 조언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 교과서와 수치화된 성적표가 없는 교육

발도르프 교육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주기 집중 수업이라고도 불리는 에포크 수업이다. 이는 한 과목을 매일 2시간, 3~6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수업 방식이다. 에포크 수업은 아이들의 신체 리듬을 고려해 집중력이 높은 오전에 시작하는데, 약 30분간 체조, 시, 노래 등으로 감각을 깨우고, 지난 수업 복습과 본시 수업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 과목의 에포크 수업이 끝나면 다른 한 과목을 같은 방식으로 수업하는 식이다. 에포크 수업은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몰입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발도르프 교육은 저학년의 경우 교과서를 따로 두지 않는다. 교과서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교사가 수업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교사는 같은 수업 내용이라도 자신만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아이들은 에포크 수업 때 배운 내용을 각자의 공책에 기록하는데, 때로는 이 에포크 공책이 교과서 역할을 한다. 또 발도르프 교육은 성적표에 성적을 기재하지 않는다. 배움은 비경쟁적인 활동이므로 아이들끼리의 줄 세우기란 있을 수 없다. 수치화된 성적 대신 발달 상황, 재능 여부, 성취 정도 등을 기록한다. 성적표는 아이들의 발전을 돕는 가이드일 뿐이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개성과 재능을 타고나기에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 각자의 기질에 따라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기질과 관심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도르프 교육의 시작이다.

## 살아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라

김용근 교장(도청초등학교)



국내 최초로 발도르프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미국과 독일의 여러 발도르프 학교들을 견학하며 발도르프 교육에 눈을 뗐다. 유행처럼 났다가 사라지는 교육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진정한 대안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94년부터 발도르프 교육을 시작했는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을 연임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지금은 유예나 초빙 교사제 등을 통해 초등 6년 과정을 교육할 수 있지만 그 당시 4년 연임은 획기적이었다.

### 오랜 시간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느꼈나?

아이들은 기다려 주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산만하거나, 소심한 아이 모두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를 교육과정에 녹여내면 아이들은 바른 길로 나아간다.

###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안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적용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자발성이다. 발도르프 교육은 교사의 열정과 노력을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데,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발도르프 교육을 실시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진심으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들이 모인 학교가 시도별로 한두 군데만 있으면 좋겠다. 현재 충남 홍성과 천안, 경남 양산과 창원, 경기 파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면 한다.

###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 조언한다면?

교사만의 살아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열을 배워서 그 가운데 가장 값진 것 하나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면 좋겠다.

# 교사가 곧 교과서다

공교육에서 발도르프 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인 듯하지만,  
교사의 자발적인 의지로 발도르프 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초등학교가 있다.  
혁신학교이기도 한 흥동초등학교가 그 예다.



충남 홍성에 자리한 흥동초등학교는 1학년, 3학년, 6학년 등 세 개 학급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한 달에 두 번, 세 시간씩 꾸준히 발도르프 교육 연수를 받은 강민정, 김명중, 문지혜 교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내려놓고 직접 설계한 교육과정으로 발도르프 교육을 시작했다. 공교육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시도였지만, 허용적인 학교 분위기와 교과를 연계해 주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는 최근의 교육 정책 추세와 맞물려 공교육 안에서도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발도르프 교육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거나 주의가 산만해 늘 꾸지람만 듣던 아이들까지 나름의 성장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교과서 진도에 맞춰 한 단원으로 끝나 버리는 기존의 교육과 달리, 하나의 과정을 오랜 시간 반복해서 하다 보니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깨닫고 있다. 손뜨개를 배운 수공예 수업, 펜타토닉 리코더를 배운 음악 수업에서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존의 공교육에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믿고 기다려 주면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실천하기 어려운 창의성 교육도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하다 보니 수업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로 나아가죠.”



1학년 강민정 교사는 발도르프 교육을 도입하면서 교사로서의 만족감도 커졌다고 말한다. “예전에도 지도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교사들의 수업 사이트도 찾아보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차시마다 끊어지는 느낌이 강하고 완전히 내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수업마다 흐름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완전히 젖어드는 기분이 들어요.”

교과서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수업하는 발도르프 교육은 교사의 의지와 노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모든 걸 교사 스스로 해내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고민하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사서 하는 교생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흥동초등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끌어 주는 건 교사라는 믿음으로, 내일의 수업을 고민하며 살아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 주기 집중 수업

- 온몸으로 배우는 수학 -

1학년

홍동초등학교 1학년 2반의 1, 2교사는 국어와 수학을 한 달씩 번갈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몰입을 높이는 주기 집중 수업 시간이다. 강민정 교사는 국어 교과서를 재구성해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와 칠판 그림을 통해 익히도록 했으며, 수학 또한 숫자를 몸으로 배우며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르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6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숫자 12를 배우는 수학 주기 집중 수업이 진행됐다. “동글게 동글게 손잡고 동그란 해님을 만들어요.” 12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수업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 매일 15~20분간 아침을 여는 활동을 하며 아이들의 감각을 깨운다. 교사의 선창으로 함께 시를 읊고, 한 아이가 대표로 나와 오늘의 시를 낭송한 뒤 기억으로 시작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간질간질 봄바람 불어온다. 강남 갔던 친구가 노래를 한다.” “자, 이제 니은으로 시작되는 노래 해볼까요?” “나비아 나비아 이리 날아오너라.”

교사가 7박자를 손으로 치면 아이들이 6박자를 발로 치고, 교사가 5박자를 손으로 치면 아이들이 4박자를 발로 치며 1박자까지 내려오는 리듬 활동이 이어지고, 손과 발 등 온몸을 이용해 12까지 박자를 세거나 1부터 8까지 세며 원을 그리는 등 다양한 활동이



강민정 교사

펼쳐졌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숫자 12를 배울 시간이다. 강민정 교사는 교과서의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열두 달 정령 이야기라는 동화로 숫자 12를 익히게 한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가 열두 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우리 주위에서 또 다른 12를 찾아볼까요?” “우리 반 아이들이요!” “연필 한 타가 12자루예요.” “교실에 있는 시계요.” “저는 토끼띠인데, 띠에도 열두 가지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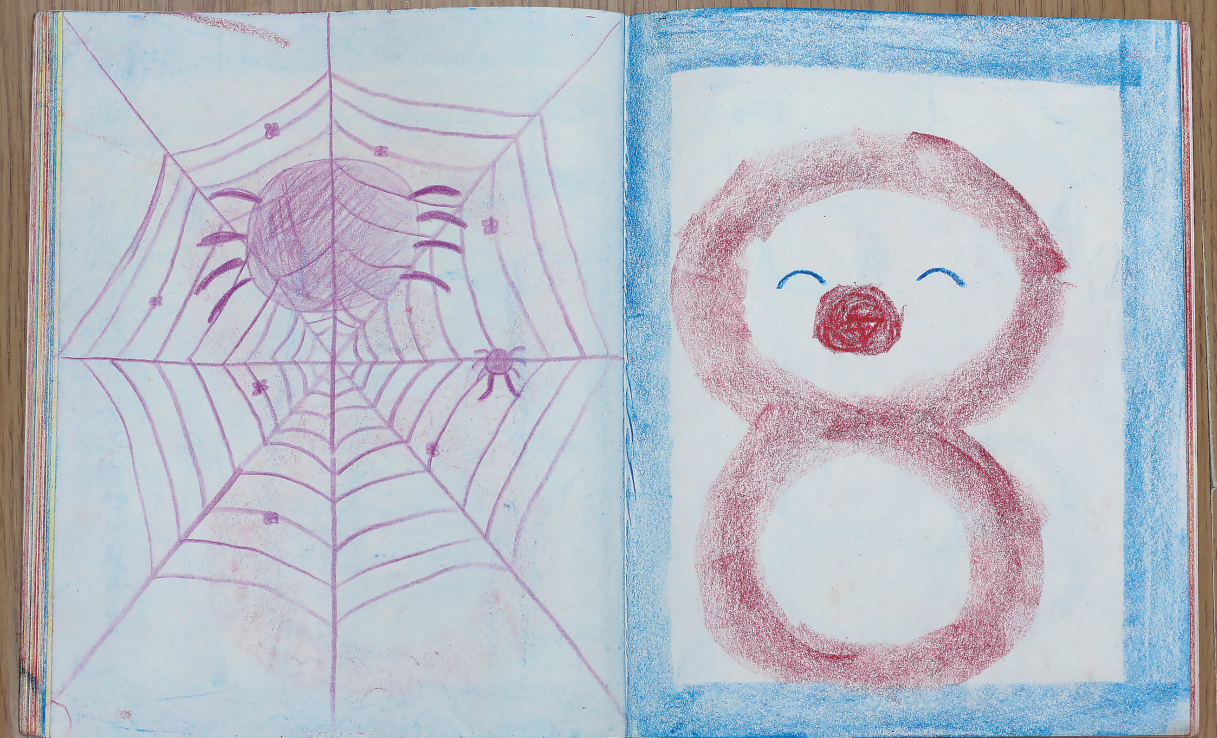
아이들의 재치와 교사의 도움으로 다양한 대답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12를 몸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세 명이 바닥에 누워 함께 온몸으로 12를 그리거나 왼손으로 1을 만든 후 오른손을 구부려 2를 표현하는 등 저마다의 상상력으로 12를 만드는 데 열심이다. “오늘 온몸으로 12를 배웠죠? 내일은 선생님이 그린 칠판 그림과 여러분의 에포크 공책으로 숫자 12를 더 공부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수학은 흔히 따분하고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온몸으로 수학을 익힌 아이들이라면 수학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은 이야기를 통해 수학을 배운다. 교사의 칠판 그림과 아이들의 에포크 공책이 교과서를 대신하고, 아이들은 온몸으로 숫자를 표현하며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운다.



저학년의 경우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흥동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한 달씩 번갈아 국어, 수학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에포크 수업을 실시하되 동화, 시, 그림 등이 교과서를 대신한다. 느리게, 즐겁게 반복하다 보면 산만한 아이도, 신체가 불편한 아이도 자기만의 속도를 찾아 배우고 성장한다.





## 텃밭 감각 수업

- 세상을 배우고 감각을 키운다 -

3학년

발도르프 교육의 초등 발달 단계에 따르면 3학년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다. 3학년 김명중 교사는 이에 근거해 아이들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도록 구약성서를 가르친다. 국어와 미술 수업을 재구성해 종교적 관점보다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국어·사회·미술 교과를 재구성한 프로젝트 학습인 집짓기,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성한 수공예, 과학·국어·미술,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성한 벼농사와 텃밭 농사 등으로 의식주 전반을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발도르프 교육은 아이들의 감각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시한다. 이를 위해 김명중 교사는 텃밭 농사와 감각을 결합해 매주 텃밭 감각 수업을 2교시 동안 진행한다. 6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된 수업은 18명의 3학년 아이들 모두가 자신들이 가꾼 텃밭에서 다양한 작물을 수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아이들은 모둠별로 교실 뒤편에 자리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작물을 정하고 텃밭을 디자인하는 일도 직접하고 있다. 오이, 상추 등 주위의 흔한 작물은 물론 애플민트, 레몬버베나 같은 허브들도 이제 아이들에게 친숙하다.

텃밭에서 작물을 수확한 후 교실로 이동한 아이들은 원하는 작물 한 가지를 골라 오늘의 관찰 대상을 정했다. 눈으로 살펴보고, 만지고,

잘라 보고, 맛보고, 향을 맡아 보며 오감으로 작물을 느끼는 활동이다. 교사가 나눠 준 워크시트에 형태, 맛, 감촉, 향 등을 적어 내려간 아이들은 앞다투어 손을 들고 자신이 관찰한 작물의 특징을 설명했다. “오이는 길고 동그래요. 맛은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고, 감촉은 가시가 있어 까칠까칠해요.” “애플민트는 끝이 구불구불하고 맛이 써요. 또 민트향이 나요.”

작물을 관찰한 후에는 이 작물들로 리스를 만드는 활동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교사가 나눠 준 리스 틀에 각자 수확한 작물들을 꽂거나 감아 원하는 모양의 리스를 만든다. 긴 잎사귀 두 장을 리스 양옆에 꽂아 토끼 귀를 만들기도 하고, 줄기가 길게 늘어진 식물을 이어 꽂아 인디언 추장의 모자를 흉내내는 등 저마다의 창의력을 발휘한다.

“완성된 리스는 칠판 앞에 놓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만든 리스를 감상하고 오늘 수업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다. “재미있었어요.”라는 소감 외에도 “자연에게 미안했어요. 우리가 따서 죽었잖아요.”라는 어린이다운 소감도 이어졌다. 아이들은 식물도 생명이므로 함부로 따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김명주 교사

세상에 나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를 배우기 위해, 아이들은 직접 텃밭을 가꾼다. 직접 키운 작물과 허브를 관찰하고, 이를 재료로 리스와 음료를 만드는 등 감각을 키우는 과학·국어·미술 통합 수업을 진행한다.





세상에 대한 이해를 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잡고 있는 3학년 수업에서는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삶과 밀접한 살아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작물을 가꾸고 수확해 맛과 질감, 향을 느껴 보고 그림과 수공예 작품으로 표현해 보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은 국어, 미술,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된다.



## 습식 수채화 수업

- 교육은 예술이다 -

6학년

발도르프 교육은 교육을 예술화하는 데서 시작된다. 예술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교육하고 교육 전반에 예술적 요소를 스며들게 하는 데 있다. 6학년 문지혜 교사는 이를 위해 미술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관계 속에서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특이한 점은 흔한 건식 수채화가 아니라, 습식 수채화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수채화는 종이에 물이 칠해진 상태에서 작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습식 수채화와 건식 수채화로 나뉘는데, 습식 수채화는 팔레트에서 색을 섞는 것이 아니라 젖은 종이 위에서 색이 섞이므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흐르는 물에 떠다니는 듯한 느낌은 아이들에게 자유로움을 전한다.

홍동초등학교 6학년의 목요일 3, 4교시는 과학, 미술 통합 수업으로, 6월 마지막 주에는 달의 모양 변화를 배운 후 이를 각자 에포크 공책에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을 습식 수채화로 표현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교사에게 물에 적신 도화지를 한 장씩 받은 아이들은 스펀지로 도화지에 묻은 물기를 살짝 닦아 낸 후 마르기를 기다린다. “습식 수채화는 기다리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죠? 기다려야 원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도화지를 옆에서 봤을 때 반짝거리지 않으면 마른 거예요. 그때 시작하면 돼요.” 칠판에 그려진 태양과 지구, 달을 바라보며 오늘의 작업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본 아이들은 도화지가 마른 것을 확인한 후 파란색 물감으로 배경을 채우기 시작한다. 파란색은 가운데에 그릴 노란색 태양이 더욱 돋보이도록 아이들 스스로가 결정한 색깔이다. 같은 파란색 물감을 사용했지만 아이들이 표현한 파란색은 같은 색이 하나도 없다.

“진하게 그리고 싶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죠? 같은 파란색을 칠해도 이렇게 느낌이 모두 달라요. 이게 다 자신의 기질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잘 그리기를 강요하기보다 자신의 무한한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수업, 교과서를 벗어나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 아이들은 발도르프 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기르고 자유롭게 자란다.



문지혜 교사



발도르프 수업은 교육의 예술화를 추구한다. 모든 교육에 예술적 요소를 입혀 의지, 감각, 사고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한다. 과학 시간에 배운 달의 모양 변화는 아이들의 에포크 공책과 습식 수채화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발도르프 교육은 모든 수업이 예술 활동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취재 당일 진행된 6학년 미술 시간에는 직전 과목이었던 과학 시간에 공부한 달의 모양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미술 이론이나 기법을 배우기보다 익히고 배운 것을 미술이라는 도구를 빌려 표현해 보는 동안 아이들은 지식과 감성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